KT, 하루 만에 3위 복귀…KIA도 끝내기 승 '5강 싸움 불 지펴'

KIA 양현종, 5회 2사까지 퍼펙트 피칭 선보이는 등

7⅓이닝 3피안타 1실점 불구 10승 문턱 5번 연속 좌절

KT 위즈가 배정대의 끝내기 안타로 LG 트윈스를 쓰러뜨렸다.

KT는 27일 수원KT위즈파크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쏠 KBO리그 LG전에서 5-4 역전승을 거뒀다.

전날 1-3 패배로 LG에 공동 3위를 허락했던 KT(66승1무50패)는 하루 만에 단독 3위로 복귀했다. 배정대는 개인 통산 세 번째 끝내기 안타로 팀을 패배 위기에서 구했다.

선발 김민수가 4⅓이닝 5피안타 3실점으로 물러난 뒤 5명의 투수가 남은 이닝을 1실점으로 막고 역전승의 발판을 마련했다. 9회 1이닝을 던진 이보근이 3승(1패4세이브)째를 가져갔다.

LG는 9회 잇단 수비 실책과 마무리 고우석의 붕괴로 고개를 숙였다. 65승3무51패로 4위다. 켈리는 7이닝 5피안타 3실점에도 승리와 연을 맺지 못했다.

선두 NC 다이노스는 파죽의 8연승을 질주했다. 한화 이글스를 안방으로 불러들인 NC는 5-4의 진땀승을 챙겼다.

71승3무42패가 된 NC는 2위 키움 히어로즈(71승1무51패)와의 4.5경기차를 유지, 한국시리즈 직행에 더욱 다가섰다.

이재학은 5⅔이닝 3피안타 6탈삼진 무실점으로 시즌 5승(6패)을 달성했다. 7월19일 KT전 이후 두 달 여 만에 맛본 승리다.

타선에서는 공포의 8번타자 알테어가 홈런 포함 3타수 2안타 1타점을 올렸다.

키움은 두산 베어스와의 더블헤더 1차전을 7-3으로 잡았다.

5위 두산은 플렉센이 7이닝 2실점으로 제몫을 했지만 불펜 난조로 주저앉았다. 시즌 성적은 61승4무53패.

두산이 패배를 쌓는 동안 6위 KIA 타이거즈는 끝내기 승리로 5강 싸움에 불을 붙였다.

롯데 자이언츠와 마주한 KIA는 연장 접전 끝에 2-1로 이겼다. KIA는 61승54패로 두산과의 거리를 반 경기로 좁혔다.

선발 양현종은 5회 2사까지 퍼펙트 피칭을 선보이는 등 7⅓이닝 3피안타 1실점으로 호투했다. 다만 타선이 터지지 않아 승리와 연이 닿지 않았다. 7년 연속 10승 문턱에서 5번이나 돌아섰다.

팽팽한 투수전이었다. KIA는 4회말 스트레일리에게 1점을 뽑았지만, 8회 오윤석의 적시타 때 동점을 허용했다.

10회말 KIA에 행운이 따랐다. 선두타자 최원준의 타구가 우익수 방면에 높게 떴다. 하지만 롯데 우익수 손아섭이 햇빛에 가려 순간적으로 공의 위치를 놓쳤고, 이 틈에 최원준은 3루까지 질주했다.

김선빈의 안타성 타구가 2루수 정면으로 향하면서 불안감이 드러워진 KIA에 김태진이 해결사로 나섰다. 김태진은 2사 만루에서 최준용의 초구를 받아쳐 투수 옆을 빠지는 중전 안타로 연결했다. 김태진의 데뷔 첫 끝내기 안타다.

7위 롯데는 58승1무57패에 그쳤다. 상위권과의 격차 좁히기를 노렸지만 통한의 패배로 가을야구 진출이 더욱 멀어졌다.

SK 와이번스는 홈런 4방을 앞세워 삼성 라이온즈를 12-1로 대파했다. 40승1무79패로 9위다.

8위 삼성(52승2무64패)은 선발 원태인은 2⅓이닝 7피안타 6실점으로 부진해 일찌감치 승리를 내줬다. 뉴시스

잘 치는 LG 김현수, 타격 타이틀 판도 흔든다

최근 10경기 타율 0.417(36타수 15안타)에 20타점 '괴력 과시'

'타격 기계' 김현수(LG 트윈스)가 막판 타격 타이틀 경쟁의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LG 4번 타자 김현수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안타와 타점을 양산하는 중이다.

최근 10경기에서만 타율 0.417(36타수 15안타)에 20타점을 찍는 괴력을 과시했다.

김현수가 무서운 기세를 뿜어내면서 각종 타격 지표 상단에도 그의 이름이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했다.

타율을 0.352까지 끌어올린 김현수는 8월 말까지 4위에 머물던 타격왕 레이스에서 1위로 뛰어올랐다. 페르난데스(두산 0.351)가 최근 10경기에서 타율 0.220(41타수 9안타)에 머무는 동안 순위를 뒤집었다.

타점왕 경쟁에 뛰어든 과정은 더욱 극적이다. 로하스(KT)가 100타점 고지를 선점했던 지난 8일만 해도 승부는 쉽게 막을 내린 듯 했다. 당시 2위 나성범(NC)은 로하스에게 10개나 뒤진 90타점에 머물렀다. 김현수는 나성범에도 못 미치는 86타점에 불과했다.

하지만 김현수는 9월 중순 이후 엄청난 페이스로 흐름을 바꿨다. 무섭게 타점을 쓸어담으면서 선두권 경쟁에 가세했다. 지난 16일 한화 이글스전 6타점, 17일 롯데 자이언츠전 7타점 등 이틀 사이 13타점을 올리는 괴력을 발휘했다.

그 사이 간격은 크게 좁혀졌다. 타점 소화가 늦어졌던 로하스가 108타점에 서있는 동안 김현수가 106타점으로 턱밑까지 다가섰다. 지키는 자와 추격자의 거리는 이제 한 뼘 차이다.

김현수의 타격왕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두산 베어스 시절인 2008년 타율 0.357로 처음 수위 타자가 된 김현수는 2년 전 0.362로 두 번째 영광을 누렸다. 타점에서 1위에 오른 적은 아직 없다.

추신수 "내일도, 내년도 뛰고 싶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베테랑 추신수(38·텍사스)가 내년에도 계속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다.

추신수는 27일(한국시간) MLB닷컴 등 현지 매체와 화상 인터뷰에서 "나의 경력을 부상으로 마치고 싶지 않다. 여전히 할 수 있고, 몇 년 더 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시애틀 매리너스전에서 오른손 인대 염좌 부상을 당한 추신수는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의료진은 추신수의 부상 정도에 대해 회복까지 4~6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추신수는 "(마지막 경기까지) 적어도 한 번은 타석에 설 수 있다면 좋은 기억이 될 것이다. 부상으로 시즌을 마치는 것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올해 메이저리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팀당 60경기만 한다. 28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전이 텍사스의 마지막 일정이다.

지난 2013년 텍사스 레인저스와 7년 총액 1억3000만 달러에 계약한 추신수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끝난다.

추신수는 올해 32경기에 출전해 타율 0.229 5홈런 15타점 6도루를 기록했다.

현지에서는 유망주 활성화 정책을 내놓은 텍사스와 추신수의 동행이 올해를 끝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앞서 존 대니얼스 텍사스 단장은 "현재 우리 팀 상황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올해 젊은 선수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본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라고 했다.

추신수의 계약과 관련해선 "그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현재로서는 누구와도 계약에 대해 말하기 힘들다"며 말을 아꼈다.

추신수는 "평소처럼 비시즌을 보내며 준비할 것이다. 올해처럼 60경기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162경기를 치르는 시즌에 나의 경력을 마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7년 동안 텍사스, 한 팀에서 뛴 건 행운이었다. 매년 트레이드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7년을 뛰며 지금 여기에 있다"며 "나에게 매우 특별하다"고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27일 전남 영암 사우스링스 영암컨트리클럽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팬텀 클래식 최종 라운드에서 우승한 안송이 선수에게 레드자켓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KLPGA 안송이, 10개월 만에 또 트로피 품다…2승째

영암 컨트리클럽서 열린 팬텀 클래식 1타차로 우승

안송이(KB금융그룹)가 다시 한 번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안송이는 27일 전남 영암군 사우스링스 영암 컨트리클럽(파72·6454야드)에서 열린 KLPGA 투어 팬텀 클래식 최종 라운드에서 3언더파 206타를 쳤다.

최종합계 10언더파 206타를 기록한 안송이는 공동 2위 그룹의 추격을 1타차로 뿌리치고 트로피에 입을 맞췄다. 우승 상금은 1억2000만원.

2010년부터 정규투어에 참가한 안송이는 지난해 10월 ADT캡츠 챔피언십에서 237번째 출전 만에 우승을 차지했다.

10년 만의 첫 승이라는 기쁨을 누린 안송이는 10개월 만에 또 다시 우승컵을 추가, 통산 2승을 달성했다.

공동 3위로 최종 라운드를 맞이한 안송이는 전반에만 버디 2개로 우승 경쟁에 뛰어들었다.

10번홀에서 버디를 추가한 안송이는 13번홀 보기로 주춤했지만 14번홀 버디로 곧장 흐름을 바꿨다.

안송이가 남은 홀을 파세이브로 끝내는 동안 경쟁자들이 타수를 줄이지 못하면서 그대로 레이스가 막을 내렸다.

장수연(동부건설), 장하나(비씨카드), 박채윤(삼천리), 허다빈(삼일제약), 김우정이 안송이에게 1타 뒤진 공동 2위로 대회를 마쳤다.

1라운드에서 깜짝 선두로 나섰던 유현주(골든블루)는 마지막 날 4오버파의 부진 속에 최종합계 1언더파 215타 공동 42위에 그쳤다.

올해 유일한 다승자이자 상금 랭킹 1위 박현경(한국토지신탁) 역시 공동 42위에 만족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프로축구 성남FC 연제운 (사진 = 프로축구연맹 제공)

성남 연제운, 2분 만에 퇴장…K리그1 역대 최단시간

종전 한교원 2015년 5월23일 전반 5분

프로축구 성남FC의 수비수 연제운이 K리그1 역대 최단시간 퇴장이라는 불명예를 썼다.

연제운은 27일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하나원큐 K리그 2020 23라운드에서 경기 시작 2분 만에 퇴장 당했다.

2012년 스플릿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K리그1에서 나온 최단시간 퇴장이다. 종전 기록은 한교원(전북)이 2015년 5월23일 인천전에서 전반 5분에 퇴장당한 것이다.

연제운은 전반 2분 성남 진영 페널티박스 부근에서 무고사(인천)에게 공을 빼앗기자 공격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잡아 넘어뜨렸다.

주심은 옐로카드를 꺼냈지만 비디오 판독(VAR)을 통해 퇴장으로 변경했다. 연제운의 반칙이 없었다면 무고사가 골키퍼와 일대일로 맞설 수 있었던 게 반영된 것이다.

성남은 연제운의 퇴장에 의한 수적 열세로 전반에 2골을 내주는 등 속절없이 무너졌다. 0-6으로 대패했다.

한편, K리그 역대 최단시간 퇴장은 전반 1분으로 최은성(당시 대전)과 장지현(당시 수원)이 2000년에 기록했다.